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무죄'

故 오형률씨 등 10명 재심 지법 첫 재판서 '무죄' 선고
검찰 "내란죄 등 입증할 증거 없어… 명예회복 기대"
재판부 "이번 무죄판결로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하길"
유족들 "너무 생각나" 눈물

21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故 오형률씨 등 4·3행불인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행불인 유족들이 법원 정문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상민기자

4·3생존수형인에 이어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제주 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산 故 오형률·김경행·서용호·김원갑·이학수·양두창·전종식·문희직·진창효·이기하씨 등 4·3 행방불명인 10명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희생됐고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둘러 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 직후 바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무죄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피고인들 공소사실은 국방경비법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번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생사 여부도 모른채 70년을 기다린 재심 청구인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3행불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제주4·3 70여년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는 김두황(93)씨 등 생존수형인 8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무죄 선고에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故 오형률씨 부인 현경하(103)씨는 "남편 없이 삼남매를 어렵게 키워왔다"며 "남편이 너무 생각난다"고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현씨 등 행불인 유족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수용했다. 재심 개시를 가를 가장 주요한 쟁점은 4·3 행불인이 법적으로 사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는 유죄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4·3행불인이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청구 대상이 된 행불인 10명이 지금까지 모두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어린 행불인의 나이는 86세, 가장 연로한 행불인의 나이가 106세"라며 "당시 평균 수명이 현재의 평균 수명에 크게 못 미쳤던 점, 처우가 매우 좋지 않은 수감자 신분 상태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비춰보면 행불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4·3 행불인 피해자는 330여명으로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이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코로나19 확진판정 30대 임산부 제주대병원서 제왕절개로 분만

병원 "2주간 수술 준비 신생아는 코로나 음성"

수술을 위해 분만실로 옮겨지는 산모와 의료진 모습. 사진=제주대병원 제공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분만 수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다.

21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30대 산모 A씨가 "출산이 임박한데 병원에서 분만 수술을 받을 수 있냐"고 병원 측에 문의했다. 이 때부터 병원 측은 A씨 출산에 대비해 수술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어 지난 8일 출산 진통을 느껴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이 때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음압 수술실에서 분만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방호복과 멸균 가운,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채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투입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으며 A씨는 3.18㎏의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했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즉시 신생아 전용 음압격리 병실로 옮겨져 돌봄을 받아오다 지난 13일 두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산모는 출산 후에도 인후통과 발열 증상이 지속돼 음압 격리치료실에서 치료를 이어왔지만 지금은 완치돼 닷새 뒤인 지난 18일 퇴원했다.

수술을 담당한 산부인과 심순섭 교수는 "특수한 상황의 수술임에도 사전에 준비된 절차와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으로 어려움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퇴원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송병철 병원장도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았을 산모에게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식당發 집단감염 우려

애월읍 참솔식당 관련 종업원·손님 등 7명 확진

최근 제주지역의 한 음식점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애월읍 참솔식당 관련 확진자가 1명(제주 512번) 추가됐다. 512번 확진자는 참솔식당 방문 이력으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참솔식당 종업원 등 관계자 3명과 참솔식당 방문 주민 및 가족 2명 등 총 5명(제주 507~511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참솔식당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도는 지난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참솔식당 관련 확진자 5명이 19일 감염된 505번(감염경로 확인중) 확진자와 함께 근무와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도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참솔식당 내에서 13명이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적 모임은 영업시간에 이뤄졌으며 모임에 식당 종업원과 단골손님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솔식당은 현재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도방역당국은 식당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를 통해 동선을 공개한 5일간(지난 14~18일)의 방문자가 33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문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중 26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사우나, 종교시설, 라이브카페 등과 관련해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도내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참솔식당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수암리 지역 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수암리 참솔식당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수암리 주민들에 대한 검사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카지노 145억 증발사건 현금 3억원 또 찾았다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145억원 증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라진 돈의 일부로 보이는 현금을 추가 발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랜딩카지노 금고에서 사라진 145억원 중 126억원에 더해 사라진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현금 3억원 가량을 최근 추가로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국내에서 검거한 30대 공범 중국인 C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을 추가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중국인 C씨로부터 압수한 것인지 등 정확한 발견 경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 작년 가정폭력으로 884명 경찰행

가정폭력 사건은 총 822건 검거인원 전년비 17% 늘어 경찰 "엄정하게 대응할 것"

제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822건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884명이 검거됐다. 이중 13명이 구속(불구속 461명)됐고 410명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740건(753명 검거)과 비교할 때 검거 건수로는 약 11%, 검거인원으로는 약 17% 늘어난 수치다. 또 2018년 677건(668명), 2017년엔 663건(674명)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검거 건수로는 약 23%, 검거 인원은 약 31%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인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현장 대응으로 도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강화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 폭이 넓어지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그랜드 보청기

2021년 신축년 감사 이벤트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최대 50~70%할인
탐나는전·제로페이 가능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